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자기 존엄이라는 궁극의 요청에 대하여

괴만이 무성해진다. 이 추악한 야만을 지금 우리는 매일 곳곳에서 보며 겪고 있다. 이 상황이 만들어 내는 최악의 독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고 사태에 대한 인식을 거부하면서 퍼뜨리는 무력감이다. 무력감은 '일부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은 모든 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도덕적 우월성으로 위장되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1883~1924)가 쓴 '법 앞에서'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부닥치는 감정이 지독한 무력감이다. 많은 카프카 작품이 그렇듯이 이 작품에서도 섬뜩함을 느끼는 것은 주인공의 자리에 어느 사이 읽는 사람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의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법의 문 앞에 문지기가 서 있고 한 남자가 찾아와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간청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단지 일반적인 법률만이 아니고 대단히 다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원칙을 포함한다. 문지기는 당장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나중에야 허락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응수한다.

남자가 돌아가지 않고 법의 문 안쪽을 기웃대자 문지기가 다시 말한다. "꼭 들어가 보고 싶으면 나를 제치고 한번 들어

가 보시오. 하지만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명심해 뒤요. 나는 가장 말단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방에서 방으로 갈수록 힘이 센 문지기들이 서 있어요." 이 말에 주눅이 든 남자는 문 앞에서 문이 저절로 자신을 위해서 열리는 때를 기다리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면서 뇌물도 써 보지만, 문지기는 주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하겠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다고 답한다.

지친 주인공이 법이라는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는 심지어 문지기의 옷깃에 붙어 있는 벼룩한테까지 입장을 허가해 달고 사정한다. 문지기의 벼룩은 보통 벼룩과는 달리 사람도 갖기 어려운 권력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벼룩이 '빠루'와 같은 강력한 힘이 있음을 본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남자는 지쳐서 결국 죽어 가면서 문지기에 묻는다. 모두들 법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 없냐고. 그러자 문지기는 "왜냐하면 이곳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나는 이제 문을 닫아야겠군요" 라고 말한다.

이 남자는 왜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것일까? 이 물음의 답은 우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더 힘이 센 문지기들이 겹겹이 법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지기의 말에 주눅 들지 않고, 뇌물도 쓰지 않고 당당히 문을 열 수 있을까?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카프카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이란 '기다리거나 뇌물을 써서 열리는 문'이 아니고 '혼자서 스스로 들어가야 하는 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법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법을 넘어서는 자기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기 존엄은 동물이 아니라는 자긍심과 진실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문 안쪽의 세계다. 자긍심은 '인간이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잠재력을 관조하면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한다.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까지 관조하는 힘,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향한 천박한 욕망에 대한 저항이 곧 자긍심이며 자기 존엄인 것이다. 이 자기 존엄의 회복이아말로 이 혼돈의 시대를 이겨 내기 위한 준엄한 요청이다.

법조칼럼

반민 특위 논란에 부쳐

뉘른베르크 재판소에는 나치 부역자들과 사죄와 행적이 빠곡히 적혀 전시되어 있고, 당시 기소, 변호, 판결 내용 및 언론 보도도 게시되어 있다.

1945년 11월 20일~1946년 10월 1일까지 심리가 실제 열렸던 2층 600호는 필자 같은 관광객에게 그대로 공개되는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600호 법정 피고인석에 착석한 전범 피고인들을 촬영한 대형 사진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독일은 나치 치하에서 권력을 휘두른 부역자들(正)에 대해 사법 절차에 따른 정확한 처벌(反)을 이루었기에, 집단 학살을 반성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승)을 그렇게 웅장하게 건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부끄러운 집단 학살의 역사를 가졌더라도 반정(反正)으로써 정확한 적폐 청산을 이룩했으므로, 과거의 부끄러움을 그 부끄러움 그대로 오히려 더 뻔뻔하고 웅장하게 기념할 수 있겠구나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제헌 헌법 101조는 '광복 이전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국회는 반

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법률 제3호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하 반민법)을 제정하였다.

제1호 정부 조직법(광복 이후 정부 조직), 제2호 사면법(당시 수감된 독립운동지사 석방)에 이어 제3호로 반민법을 제정한 순서를 보면, 당시 시민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철학학과 법률 제정권자의 뚜렷한 입법 의지를 알 수 있다. 반민법 공포에 따라 국회는 1948년 10월 12일 반민 특위 구성을 마친 다음, 특별재판부 재판관, 검사관, 조사부를 꾸려 민족 반역자 처단 기구를 완성하였다.

어디나 반동 세력의 반격은 있게 마련이다. 노덕술, 최난수 등은 1948년 10월 말경 대법원장(김병로 반민특위 특별재판부장), 검찰총장(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 국회의장(신익희) 등의 암살 계획을 짰으나, 모의자의 자수로 실패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 특위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법 이론,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현실론으로 반민 특위를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되었다. 1949년 1월 친일 기업인 박흥식의 체포로 활동을 시작한 반민 특위는 같은 해 5월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힘을

잃더니, 그해 6월 6일 특위 산하 특경대 습격 사건으로 완전히 복구 불능이 되었다. 이른바 6·6 사태 두 달여 만인 1949년 8월 31일 반민 특위는 그렇게 해체되고 말았다.

반민 특위의 해체는 반민족 부역자의 재립을 뜻하고, 이는 역사에서 부정(不正)이 다시 부정(歪正)되어 정(正)이 되는 정현의 실패를 뜻한다.

독립운동과 친일, 광복, 반민 특위 구성, 부역 세력의 반격, 반민 특위의 실패의 사정이 이와 같거늘, 최근 모 중진 정치인이 '우리 해방 후에 반민 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십 겁니다'라고 했다. 그가 '반민 특위'와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전범, 간상배' 사이 과거 세력 다툼을 가지 중립적 국론 분열로만 인식한다면 그의 역사 인식이 참으로 졸렬하다.

그가 나는 '반민 특위'보다 '민족 반역자, 부일 협력자, 전범, 간상배' 편에서 정치하겠다는 내심을 '반민 특위'로 변명하는 것이라면 그는 참으로 비겁하다. 통합과 비전을 말해야 할 정치인이 졸렬 아니면 비겁 혹은 양자의 어중간한 곳에서 있다면 그의 미래는 뻔하다.



김상훈
변호사

지난 2016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큰아들과 함께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포츠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뮌헨을 거쳐 살짝 오스트리아 로이테로 넘어 갔다가 다시 보덴체, 슈바르츠발트, 하이델베르크를 지나 프랑크푸르트에서 귀국하는 8일 일정이었다.

연방 국회와 베를린 장벽 등지의 정치 관광, 뮌헨의 BMW 본사 등 산업 관광, 하이델베르크 고성과 슈방가우 백조의 성 등 유럽 관광으로도 손색이 없었지만, 제일 핵심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역사 관광이었다고 답하고 싶다. 바로 베를린 노른자위 땅을 채운 홀로코스트 기념관과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 때문이다.

기고

젊음이 물결치는 전남, 바다에 희망이 있다

국인 근로자들로 대체된 지 오래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업인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업 분야는 인구 조사 인구수 모두 감소했다. 고령에 따른 업종 포기와 전업(轉業)이 주원인으로 꼽혔다.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이미 불가피한 현실이다.

하지만 어업 분야의 낮은 고령 인구 비율에서 필자는 희망을 발견했다. 어업 분야 조사가 뺀장어 양식 등 내수면 어가를 제외한 해수면 어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어업 종사자의 고령 인구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지역의 해수면 어가 고령 인구 비율은 32.4%로 전국의 36.3%보다 3.9%p나 낮았다. 이와 필수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40대 미만 어가 수는 전남이 20.9%로 전국 18.4%보다 2.5%p 높게 나타났다.

한마디로 전국 어촌 중 전남이 가장 젊다. 전남은 아름다운 섬과 연안, 드넓은 갯벌, 어항 시설과 항만 등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수산 분야 또한 양식장 면적, 어선 수, 수산물과 친일업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전국 1위다. 하지만 풍부한 해양 자원과 수산 여건 속에서도 현재 전남 해양 수산이

맛닥뜨린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해양 쓰레기 발생과 처리 방안, 예상할 수 없는 기후 변화로 발생 하는 저·고수온과 적조, 해류 변동과 바다 사막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어족 자원, 매년 줄어드는 어가 인구와 부족한 노동력, 수산물 생산량을 따라잡지 못하는 낮은 가공률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 해양 수산의 미래가 밝다'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기르는 어업으로의 생산 방식 전환 추세에 있는 요즘 스마트 양식과 첨단 양식 시스템으로 하는 '수산 혁신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자원 관리 중심의 연근해 어업 ▲스마트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양식 어업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 활력 제고 ▲자생력을 갖춘 수산 기업 육성

▲소비자 중심의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골자로 했다.

전남도 역시 정부 정책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양식 기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원 조성 사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섬과 해양 자원의 가치 재조명을 통해 해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촌 뉴딜 300 추진으로 어촌을 혁신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 인력의 집중 양성을 위해 내·해수면 소득 품종 창업 여장 개발을 지원하고 수산계 학교 졸업 청년의 양식 여장 고용 지원 사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다. 감소하는 어촌 인구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도시민 어촌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어촌계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장 임대 및 새로운 어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집단의 규모나 구성원의 크고 적음과 관계없이 그 집단의 주축이 '젊다'라는 것은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남 해양 수산이 가진 '젊음'이라는 으뜸 자원에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들이 뒷받침하고 있어 젊음이 물결치는 '전남 행복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

社說

수영대회 참가 외국인 소득세 면제 절실하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 법인과 개인의 법인세·소득세 5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대회 개막이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태껏 예산 반영이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하는 국제수영연맹(FINA)과 각종 수영 연맹 등 외국 법인은 개최권료와 방송 신호 제작비 등을 통해 벌어들인 444억 원에 대해 19억 5000만 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또 외국 법인의 위원과 임직원·선수·감독·심판 등이 대회 상금이나 항공료·심판 수당 등으로 135억 원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득세 29억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에선 개최국이 이들 세금을 대납하거나 면제해 주는 것이 관례다. 광주시가 엇그제 지역 국회 의원 정책 감담회에서 외국 법인과 개인

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면제해 주는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대회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만 50억 원의 세금까지 부담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으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런 여건을 감안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은 지난해 11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경기 대회를 지원하는 방향 중 하나인 특례법 개정은 2011년 대구 세계육상대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적용된 바 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역시 대규모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외국인 세금 면제가 절실하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은 이번 대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해 정치권과 소통 강화를

지난주 서울에서 열린 '광주 2019 정책 감담회'는 광주시의 내년 국고 예산과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서 광주시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쓴소리가 쏟아졌다고 한다. 장병완 의원(동남 갑)은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유치와 관련, "정부출연기관 개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개정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때로는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한데 이날 감담회에서 나온 발언 중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말이 있다. 일부 의원들의 이용성 시장과 실·국조들에게 강한 불만이다.

최경환 의원(북구 을)은 "명색이 민주당 평화당 광주시당 위원장인데, 시장은 물론이고 시장 간부 그 누구에게서도 오늘 감담회 일정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천정배·박주선 의원도 해외 출장

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일정을 잡은 것이냐"고 했다. 김경진 의원(북구 갑)도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 사업이 진척이 안돼 시에 사업 현황을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여태껏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들 두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광주시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 시가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에 별다른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감담회는 광주시 주요 현안 해결 및 내년도 국비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날 송갑석 의원(서구 갑)의 지적처럼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도 필요했다.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 등에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광주시 간부들 역시 의원들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했다.

無等鼓

역시 방탄소년단(BTS)이었다. 28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수영대회 성공 기원 슈퍼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은 화려한 군무와 뛰어난 열정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트위터 팔로워 2000만 명, 유튜브 구독자 1800만 명을 거느린 이들의 파워는 광주수영대회를 가장 극적으로 세계에 알렸다.

BTS의 공연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은 이들 그룹이 지향하는 철학 때문이다. 작가 구자형은 'BTS-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라는 책에

'방탄'과 '방패'

전다르크와 그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망 발일터. 자량의 기득권을 위해 민의의 정당마

라는 충알 때문에 '피땀 눈물 흘리는 청춘'들을 위해 '기꺼이 방탄조끼'가 되고 자했다고. 젊은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음악으로 눈물을 아릅답게 승화시켰다는 의미다.

광주 또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 시대의 '방탄'이 됐다. 80년 5월은 신군부가 총칼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비극의 역사였다. 당시 수많은 희생자들의 낮은 이후 민주주의를 밝히는 고귀한 불씨가 됐다.

작금의 국회에서 연출된 아수라장은

저 사지로 내몬 나 원내대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분명한 것은 진실은 방패를 뚫게 돼 있다는 점이다. 투표라는 '총탄'이 가져올 결과가 기다려지는 건 그 때문이다. 기득권을 위한 방패가 아닌 많은 이들을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지켜 주는 차원 높은 방탄이 필요한 시대다. 대의를 상징하는 '방탄'과 그들만의 '방패'에는 천양지차, 하늘과 땅 사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오래 전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읽었던 적이 있다. 늙은 어부가 운 좋게 걸린 큰 고기를 지키기 위해 상어 떼와 밤새 사투하는 스토리가 주된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늙은 어부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사투를 벌여 지킨 큰 고기는 뼈만 남은 상태였다.

이 책을 읽었던 1980년대 초 '바다와 어촌'을 상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비좁은 항 포구와 작고 낡은 배들이 즐지어 정박되어 있고 노인이라 불릴 법한 어부가 그물을 손보거나 생선을 선별하는 장면이었다.

지금의 바다와 어촌은 달라졌다. 비좁았던 항 포구는 넓어졌고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어선은 대형화되었고 대부분의 작업은 기계가 대신한다.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장엔 경영자가 고품질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사(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편집부	220-0649	문화사업부	220-0541
정리부	220-0632	(FAX 222-8005)	(FAX 222-0195)
경계부	220-0663	여론대체부	220-0652
사회부	220-0664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42	사진부	220-0693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